

'95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문

의안 번호	
----------	--

제안년월일 : '95. 10. 21.

제안자 : 김성인 의원 외 5명

1. 제안 이유

쌀농사가 우리 민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인 전통과 민족의 생명 산업임을 직시하지 못하고 도외시한채 우리 농업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심히 개탄하면서 정부의 수매가 정책과 농업 정책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참으로 우리의 농업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뜻을 건의하기 위함임.

2. 주요 골자

- 수매가 최소 14% 인상과 1,200만섬 수매
- WTO 이행 특별법을 제정 각종 농업 보호장치 강구와
- 쌀 농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영세 쌀 생산농가 지원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
- 쌀값 계절진폭 15% 이상 허용과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 쌀 생산 농가에 대한 간접적인 소득지원
-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7대 농업 보호조치 시행
- 생산량 기준에 따른 수매량 배정 시행

3. 건 의 문

별 첨

'95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문

세계무역기구(WTO)출범 첫해인 95년 올해, 그 어느때 보다 신중하고도 적극적인 수매정책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또다시 수매가동결, 수매량 축소방침을 발표하여 전체농민의 생존권을 극도로 위협하고 영농의욕을 현저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쌀농사는 5천년 우리민족의 생명과 문화.전통을 지켜온 생명산업임과 동시에 우리 농민에게는 쌀농사로 얻어지는 소득이 전체 농업소득의 40%에 달하는 가장 중요한 소득원입니다.

우르과이협상과정에서 전체국민과 6백만 농민을 철저히 속여가며 사대매국적인 태도로 일관하여 가장 굴욕적이고 실패한 협상을 벌인 김영삼 정부가 또다시 세계 무역기구(WTO)협정을 핑계로 보조금 감축조항만을 앞세워 사상유례없는 2년 연속 수매가 동결과 수매량 축소방침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이 반농민적인 폭거이며, 민족의 생명창고인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반민족적인 작태로 8만 화순 군민과 함께 실망과 허탈감을 금치 못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95년 27.2%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완전자급을 자신하던 쌀마저도 수매가동결 등에 따른 경작포기 면적증가와 냉해, 한해 등으로 인한 수확량 감소, 작목전환 등으로 인하여 92년 97.4%에서 94년 87.8%로 급격히 떨어졌으며, 불과 2~3년전까지도 남아돌았던 재고미는 북한에 쌀지원으로 인하여 세계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유사시 비축량 550만섬에 훨씬

못미치는 454만섬으로 우리나라 식량수급사정은 시급한 대책이 필요로 하는 상황임이 확인되었습니다.

국제시장의 쌀값은 가격의 불안정속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의 쌀값 동향은 단경기와 작황부진이 겹치는데다 중국, 태국 등 주요 쌀 수출국들의 쌀 수출제한과 중단 등으로 인하여 더욱 급등세를 보일 전망입니다.

만약 농업이 피폐화 되고 양곡자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식량은 국제사회에서 또 하나의 무기가 되어 우리국민의 생명을 외세에 의지한채 부지해야하는 상황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식량자급에 대한 목표를 분명히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협정에 따른 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WTO이행 특별법을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는 다각적인 노력과 함께 식량자급과 농가 소득보장이라는 농정의 대전제속에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등 WTO 협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각종 농업보호 조치를 강구해나가야 합니다.

이제라도 쌀 생산비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농민이 쌀농사를 지속할 수 있는 정당한 수매가를 제시하고 식량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수매량을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WTO 협정을 핑계대거나 물가안정을 이유로 생산비에도 못미치는 쌀값을 책정한다면 농민은 더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입니다.

쌀의 자급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생산비 보장과 적정량의 수매는 확실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한번 식량자급과 농가의 소득보장 및 농정개혁을 통한 농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차원에서 정부의 수매정책이 세워질 것을 촉구하며,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8만 화순군민과 화순군의회의 뜻을 정중히 건의하는 바입니다.

1. 안정적 쌀생산 기반유지와 쌀생산 농가의 생산비 보전을 위해 수매가를 최소 14% 인상하고 1,200만섬 수매해야 한다.
2. WTO 이행 특별법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하여 WTO 협정이 허용하는 각종 농업 보호조치를 강구하고 국민의 식량자원으로 쌀이 가지는 환경보존기능, 민족 문화계승, 창달기능 등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영세 쌀생산 농가지원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를 즉각 시행해야 한다.
3. 쌀의 민간유통기능 활성화와 생산농가의 소득보장을 위해 쌀값의 계절진폭을 15% 이상 허용하고 농협 등 생산자 조직 및 자치단체의 자율적 유통기능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4. 쌀 생산농가에 대한 간접적인 소득지원과 농가부담경감을 위해 통합의료보험, 농업재해보상 등 7대 농업보호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5. 농도인 전남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생산계획량에 따른 수매량 배정기준을 철회하고 생산량을 기준으로 배정해야 한다.

1995년 10월 31일

화 순 군 의 회 의 원 일 동

'95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문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95추곡수매에 대한 건의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김성인 의원 외 5인
- 나. 제출일자 : '95. 10. 21
- 다. 회부일자 : '95. 10. 21
- 라. 상정일자 : '95. 10. 30 (제38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쌀농사가 우리 민족에게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사적, 문화적인 전통과 민족의 생명 산업임을 직시하지 못하고 도외시한채 우리 농업을 압박하고 있는 현실을 심히 개탄하면서 정부의 수매가 정책과 농업정책에 대한 사고의 대전환을 요구하고 참으로 우리의 농업을 살리기 위한 간절한 뜻을 건의하기 위함임.

나. 주요골자

- 수매가 최소 14% 인상과 1,200만섬 수매
- WTO 이행 특별법을 제정 각종 농업 보호장치 강구와
- 쌀농사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과 영세 쌀 생산농가 지원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 시행
- 쌀값 계절진폭 15%이상 허용과 유통기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재정적 지원
- 쌀 생산 농가에 대한 간접적인 소득지원
-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7대 농업 보호조치 시행
- 생산량 기준에 따른 수매량 배정 시행

3. 질의답변 요지

생략

4. 심사 결과

원안의결



5. 첨부

'95 추곡수매에 대한 건의문